

신술위 | 책임연구원 (제 7164)

- 주요 뉴스: ECB, 주요 정책금리 25bp 인하. 향후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 마중 정상, 관세 및 히토류 관련 추가 협상에 합의
 - 미국 재무부, 중국 등 9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 미국 고용지표 악화 및 수입 급감 등 관세 정책 영향 본격화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용지표, 마중 무역협상 재재 소식 등이 영향
 - 미국 주가 하락[-0.5%], 달러화 약세[-0.1%], 미국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마중 무역협상 재개에도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마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에 힘입어 소폭 강세
 - 환율: 달러화 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약보합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5% 하락
 - 금리: 미국(10년물)은 고용지표 불구 전일 급락 및 마중 정상 통화 영향으로 상승
독일은 ECB의 금리인하 감속 시사에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352.5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5.2원, -0.24%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수					주요지수				
		6/5일	6/4일	전일대비			6/5일	6/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39.3	5,970.8	-0.53%	국제금리 10y	미국	4.39	4.36	3bp
	유럽	551.88	551.02	0.16%		독일	2.58	2.53	5bp
	중국	3,384.1	3,376.2	0.23%		영국	4.62	4.61	1bp
	일본	37,554	37,747	-0.51%	CDS 5y	한국	28	28	0bp
	한국	2,812.1	2,770.8	1.49%		중국	50	50	0bp
환율	달러지수	98.72	98.79	-0.07%	위험지표	EMBI+	-	380	-
	유로화	1.1445	1.1417	0.25%		VIX	18.48	17.61	4.94%
	엔화	143.53	142.77	-0.53%		WTI유	63.37	62.85	0.83%
	위안화	7.1777	7.1780	0.00%	원자재	구리	493.3	488.65	0.95%
	원화	1,358.4	1,369.5	0.82%		금	3,352.7	3,372.7	-0.6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주요 정책금리 25bp 인하. 향후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 ECB는 수신금리(2.25% → 2.0%), 리파이낸싱금리(2.40% → 2.15%), 한계대출금리(2.65% → 2.40%)를 7회 연속 25bp 인하. 금년 성장률 전망은 0.9%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월 2.3%에서 2.0%로 하향 조정
- ECB는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지출이 중기적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
- 라가르드 총재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ECB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well positioned)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통화정책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평가
- 블룸버그는 ECB 위원들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일부는 인하 사이클이 이미 종료됐다고 보는 반면, 일부는 9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시각차가 있다고 보도
 - 에스κρι바 ECB 정책위원은 향후 통화정책 결정은 모든 경제 및 금융 지표를 면밀히 살펴 판단할 것이며, 특히 관세분쟁의 전개 양상과 유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중 정상, 관세 및 희토류 관련 추가 협상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세 및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복잡한 사안들이 정리되었고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평가. 시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하는 모습
- 무역 외 이슈와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

■ 미국 재무부, 중국 등 9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지정. 중국은 관찰대상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환율정책 불투명성을 이유로 지정됐다고 설명

■ 미국 고용지표 악화 및 수입 급감 등 관세 정책 영향 점증

-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7만 건으로, 예상치(23.5만 건)와 전주 수치(24.0만 건)를 모두 상회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 기록.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고용 지연으로 해석하는 동시 계절적 왜곡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한편, 미국 4월 무역수지 적자는 '23년 이후 최소인 616억 달러로 축소. 수입은 주로 의약품, 산업재,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3% 급감한 반면, 수출은 3% 증가

■ 연준 주요 인사, 관세 분쟁에 신중하지만 민첩한 대응 필요

-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관세 및 여타 정책의 영향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연준은 관망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관세의 성장 및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연준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캐나다, 對미 수출 급감에 4월 무역적자 사상 최대

- 4월 캐나다의 수출은 전월 대비 10.8% 감소하며 팬데믹 시기 제외 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미국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15.7% 급감하며 4월 상품 무역수지 적자폭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71억 캐나다달러를 기록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주요 경제 이벤트(6/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실업률(예상 4.2%, 전월 4.2%), 5월 비농업고용자수(예상 12.7만명, 전월 17.7만명), 5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_{mom}(예상 0.3%, 전월 0.2%)
- 유로존 4월 소매판매 증가율_{mom}(예상 0.2%, 전월 -0.1%), 라가르드 ECB 총리 연설, 인도 통화정책회의(예상 5.75%, 현재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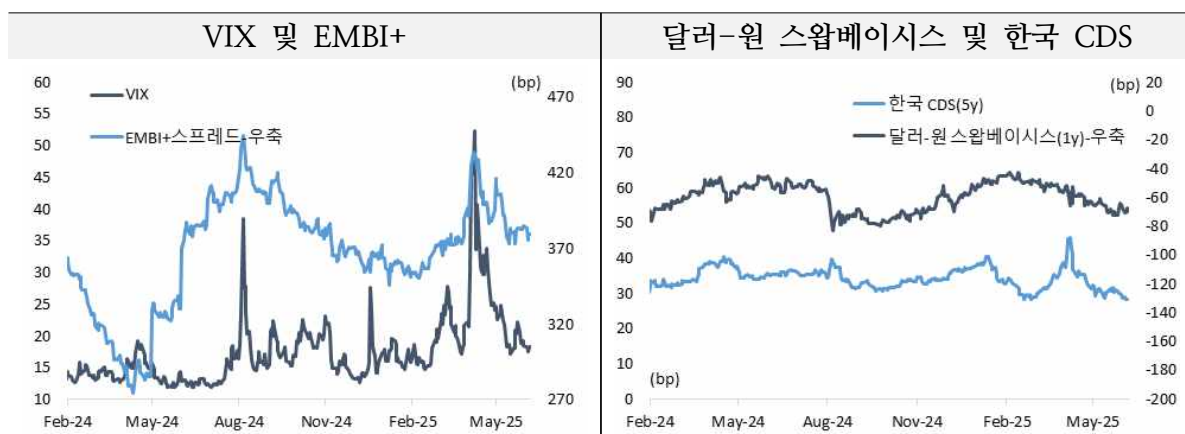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46, E-mail swshin@kcif.or.kr